성수주일 대신 성수매일

(스가랴 7:1~14)

1.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 그 때에 벧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수주일 대신 성수매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성수주일 대신 성수매일'

성수주일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앙적 논리를 따라 진단해 보면 성수주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 교회를 고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느끼는 교인들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대형교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이 출석하는 유명교회들은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교회들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의 교인은 오차를 감안하고도 한때 1200만에 이르던 성도가 600만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성수주일을 하는 교인은 고작 250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자청하면서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도 80만 100만을 넘어 이제는 2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수주일이라는 대원칙이 대한민국 교회를 죽어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주일은 현재 대한민국 성도들의 영성적 기질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박해와 영적 박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적 박해

는 외적인 측면에서 종교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영적 박해는 종교생활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박해의 선봉에 성수주일이 서있습니다.
성수주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든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해소시키고 충족시켜주는 역할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삶 전반에 걸쳐 영적 부담감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성수주일이 아니라 성수매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셈입니다. 일주일 내내 삶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수주일은 영적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일 하루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육일은 세상이 마음에 포로 되는 것을 묵인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수주일이 성수매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종교적 박해가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가 교인들을 영적으로 박해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성수주일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수매일로 바뀌기 전에는 고사상태에 빠지고 있는 교회를 되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합측 교단에서 국내 선교부의 부장직을 수행하셨던 동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10년이 넘도록 저와 함께 십자가 복음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의 일을 맡으셨을 때에 한국교회의 쇠락을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렇게 임기가 끝나고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생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십자가 생활화의 차원을 넘어서 교인들의 십자가 생활화를 목회와 연관시키면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목회체계에서 목사는 예배당에 머무는 자였습니다. 목사가 머무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끌어 모으는 구도로 목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는 예배당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삶의 현장이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강조하다보면 기존의 목회체계의 붕괴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인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이고 예배당 안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당 중심의 조직을 위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도와 헌신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많은 헌금으로 이어지고 충분한 예산은 교회 운영을 순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체계는 불가능합니다.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하는 장소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곳도 삶의 현장입니다. 이때에 예배당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한민국 교계는 예배당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세우려 하였고 성주주일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수련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는 예배당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삶의 현장에서 연결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면 그것을 돕는 자가 목사입니다. 결코 예배당의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교인들은 목사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교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수련원과 같은 의미로써의 예배당을 지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구약성경과 선지서 전체가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종교로 뒤바꾼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종교가 되면 종교의 영역이 생겨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우상화였고 오늘날에는 예배당 중심의 생활입니다. 종교야말로 영성 박해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종교로 전락할 때에 영성은 제거되고 박해받습니다.
모순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종교와 신앙은 염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식 상태로 만들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종교적 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는 장소는 성전 뜰이 아닌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기독교의 복음에서 예배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존재하지 않고 삶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삶이 연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면 육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벧엘 사람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표를 보내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민들이 포로생활을 하던 중에 가나안 땅에서는 없었던 종교 습관이 있었는데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근신하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5월을 근신했던 이유는 BC.586년 5월 7일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월을 근신했던 이유는 남 왕국 유다가 멸망에 치닫던 혼란의 시기에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돌보았던 성실한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된 선민들은 이 근신의 기간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 대답을 선지자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의외의 대답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선민들이 칠십 년 동안이나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근신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 새삼스레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선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이들의 슬픔은 종교생활에 박해가 가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민들이 종교생활에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반복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민들이 성전뜰을 오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고아와 과부와 궁핍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고, 돈에 눈이 멀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얻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선민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은 삶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었고, 마음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포로가 되어있으니 재판을 그르칩니다. 과부나 고아를 구제할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포로 된 것을 슬퍼하지 않고 종교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 것을 슬퍼하지 않고, 삶이 형통하길 바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셨습니다.

성전의 존재 의미는 단지 선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남쪽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던 상번제를 마음으로 바라봄을 통해 삶에서 성전을 생활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합당한 방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일하는 동안에도 성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종교의 영역이 되면 이와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목축업이라는 세상일에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성전을 찾아오면 성전은 종교의 성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서라도 하는 일이 형통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목축업의 번성과 희망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영성적 목축업의 현장이 아니라 혈과 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서 일 년에 세 번씩 성전에 오라고 하신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기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 년에 세 번 정도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듯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계셔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상번제로 죽는 어린 양과 마음을 일치시킴으로써 세상의 포로 된 마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성전을 종교적으로 성지화해서 이 세상에 포로로 잡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열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포로 된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종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성전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보조수단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예배당의 존재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조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느냐가 교인의 기준이지 결코 예배당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인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의 여덟 개의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세상에 포로 될 것이냐 하나님께 포로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로 됨의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세상에 사로잡힌 나를 죽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이 교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 안으로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놓치면 복음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신앙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는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부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느냐가 신앙고백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인 조직가운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 했다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고백은 되지 않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놓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신앙고백이라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할 때에 예배당에 다니며 하는 신앙고백에서 진정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을 인정했고 단지 예배당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삶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먹고 마셔서 남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배당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나 성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모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주일을 성수매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성수매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회교국가가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회교국가나 불교국가나 이상한 종교의 국가가 될지언정 교회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성수주일이라는 원칙이 지금도 모든 교인들의 영성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묶여서 살아야 하는 영성을 끊어내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성수주일의 율법에서 벗어나 성수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수주일이라는 말에 묶여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느라 육일을 혈과 육에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성수주일이 아니라 성수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